

“ 우리의 통일 노력 ”



남북 분단의 배경

- 1 단계 해방 직후 남북한 지역에 미군과 소련군 주둔
- 2 단계 한반도 신탁 통치 실시 결정 및 국민 여론 분열
- 3 단계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 실패
- 4 단계 남한과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 5 단계 6.25전쟁의 발발과 휴전

남북관계 전개



1970년대
남북대화 시작



1980년대
남북회담 확대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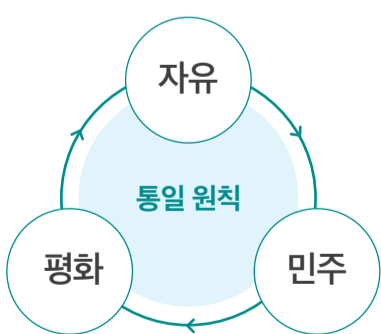


2000년대
2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협력



2010년대
갈등과 화해 협력의 공존
(3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우리 정부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 시각

- 자유민주주의
- 민족공동체 건설

통일의 의미

- 지리** 국토의 통일, 한반도 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 마련
- 경제** 두 경제권의 통합, 국가 간 경제적 의존성과 통합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형성
- 정치** 체제의 단일화, 남북의 정치체제를 통합하여 단일 헌법, 단일 정부, 단일 국가 수립
- 사회** 공동체 형성 및 동질성 회복,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문화적 공동체로 발전

북한 청소년 생활

01

북한 청소년들은 방학 기간 동안 '소년단 방학계획'에 따라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동네에 사는 학급 친구들이 모여 방학 숙제, 일손 돕기 등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방학 숙제는 국어, 수학 등 과목별 숙제는 물론 경제 활동 과제도 있습니다.
경제 활동 과제는 토끼 길러 가족 모아내기, 깡통과 같은 폐자재 모아내기, 종이 모아내기 등이 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교복

소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북한의 교복은 소학교, 초·중·고급중학교, 대학별로 교복이 구분되지만,
같은 학교 급별로는 디자인이 같아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 TV에서 자주 보이는 빨간 넥타이는 소년단원이라는 표시인데, 소학교 2학년부터 초·중·고급중학교 3학년까지 매고 다녀야 합니다.

일상복

장마당에서 중국산 의류 등을 구입해 입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국 드라마의 패션 등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놀까요?



놀이

컴퓨터 게임보다는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도 컴퓨터나 전자기기, 모바일 기기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전자오락을 하는 북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는 방 탈출 게임인 '3차원 비밀의 문', 유명 자동차 게임인 '평양 레이서' 등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북한에도 만경대 유희장, 개선 청년공원 그 외에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썰매장과 스키장으로 놀러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남북 놀이기구명 비교

남	북
자이로드롭	금강하탑
롤러코스터	관성열차
바이킹	관성안차

북한 청소년 생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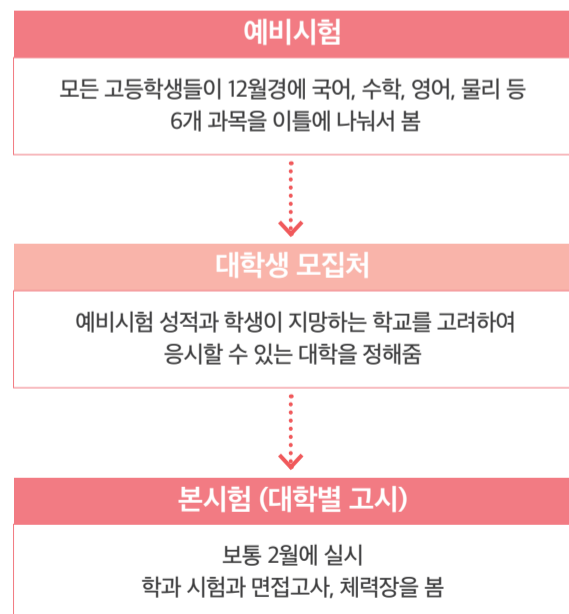
북한의 학교제도가 궁금해요!(학제)



대학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북한 대학 입학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있어요. 학생들은 먼저 예비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대학별 본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대학에 입학 하게 됩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70% 정도가 군에 입대하며, 20%는 직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를 '직통생'이라고 부릅니다.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군복무를 마치면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
5~17세

유치원 (높은반)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의 별칭이다. 판문점은 본래 6.25전쟁 때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장소를 가리키던 명칭으로, 정전협정이 조인된 실제 판문점은 현재 공동경비구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남짓 떨어진 북한 지역에 있다. 판문점은 1970년대 이후 남북 간 접촉 및 회담 장소로 자주 이용돼 왔고, 특히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자유 의 집과 판문각

판문점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과거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했던 남측 '자유 의 집'과 북측 '판문각'이 마주 보고 있다. 현재 남북 간 연락업무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자유 의 집과 판문각 뒤쪽에는 회담장 건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 남측 회담장은 '평화 의 집', 북측 회담장은 '통일각'이라 불린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군사분계선 위의 가건물 7개 동은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다. 7개 동 중 회색 4개 동은 북한 측, 하늘색 3개 동은 UN 측이 관리하는데, 하늘색 3개 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각 T1, T2, T3 불린다. T는 임시로 쓰는 가건물 'Temporary(임시)'라는 뜻으로 세계 최장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T1 :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 :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장벽을 넘어 '사람'이 오가는 통로



판문점은 정전 이후부터 2000년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한반도에서 남북 왕래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였다. 1953년 8~9월에는 대규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1985년 9월 남과 북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판문점을 통해 왕래했다. 1998년 6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도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다



2018년 4월과 5월에 연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회동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은 군사적 공간에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평화의 집, 남북 정상이 동행 산책을 했던 도보다리, 북·미 정상이 만난 자유 의 집 등은 평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분단의 상징 DMZ ”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남과 북을 나누는 총 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이 그어졌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란

군사적 충돌 예방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후방 2km, 북쪽 후방 2km 안에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는 허가 받은 개인화기 외에는 어떠한 무기도 반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각종 개인화기 뿐 아니라 지뢰, 기관총, 고사총, 무반동총, 박격포 등 각종 중화기가 반입된 ‘중무장지대’로 존재한다.

대결의 현장 DMZ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90년대까지 DMZ 일원에서는 군사 충돌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DMZ 일원 군사충돌이 잠잠했다가, 2010년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DMZ 일원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화해의 현장 DMZ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해 그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했고,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DMZ가 꿈꾸는 미래



DMZ는 냉전과 대결의 아픔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흔적,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한 자연을 품고 있다. 오늘도 DMZ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 생태의 보고로 거듭날 날을 꿈꾸고 있다.